

발간번호 2022-23

사후자료집

문화도시부평 토론회

공간, 창작(예술),
시민(청년),
기획자를 위한
공공 지원에 대한
이야기 나눔

문화도시

부평

2022. 12. 6.(화)
14:00~17:00
문화공간 시소
- 시소마루1

공공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

토론회

행사 소개

2022년 7월, 공공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문화도시부평 포럼에서 나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부평에서 공공지원을 경험하고, 지역문화 생태계의 일선에 선 당사자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나누다 보면 서로 상반된 이야기의 결을 확인하게 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자의 머리 속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내기도 하고 굽직한 한 갈래로 모아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제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해답을 발견해 보시지요.

개요

주제 공공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
일자 2022. 12. 6.(화) 14:00-17:00
장소 문화공간 시소 - 시소마루1
대상 문화도시와 공공지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내용 공간운영자, 창작자, 예술가, 시민, 기획자가 경험하고 바라는 지원
문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팀 032.500.2152

행사 식순

구분	일정	내용	비고	
	14:00-14:01	1'	개회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팀장
	14:01-14:05	4'	환영사	이찬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좌장 유상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원장

1부. 공간운영, 창작·예술을 위한 공공 지원				
1	14:05-14:45	40'	5분 발언	서광일 잔치마당 대표 김진희 구스타 대표 한상우 십시일반 대표 박상희 마분리공동체 팀장 박경준 벨리시모양상블 대표 도경국 극단 사람 그리다 대표 이은희 영화감독 방영문 사진작가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2	14:45-15:25	40'	토론	
3	15:25-15:35	10'	자유토론	
	15:35-15:45	10'	휴식	
2부. 시민·청년, 기획자를 위한 공공 지원				
4	15:45-16:20	35'	5분 발언	김동균 시각작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소속 김정근 ㈜드림필 대표 김민성 부평문화도시센터 팀원
5	16:20-16:55	35'	토론	김순지 북극서점 대표 이강민 몬스터레코드 대표 조화현 i신포니에타 단장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6	16:55-17:00	10'	자유토론	
	17:00-		폐회	사진 촬영

목차

1부.	공간운영, 창작·예술을 위한 공공 지원 / 원고	7
	공간운영, 창작·예술을 위한 공공 지원 / 5분 발언	23
	공간운영, 창작·예술을 위한 공공 지원 / 토론	37
2부.	시민·청년, 기획자를 위한 공공 지원 발언 / 원고	59
	시민·청년, 기획자를 위한 공공 지원 발언 / 5분 발언	65
	시민·청년, 기획자를 위한 공공 지원 발언 / 토론	77

토론자 원고

김진희 구스타 대표

구스타는 11년도 미술동아리를 시작으로 14년도 부평시장 로터리 지하상가 내 공간을 지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5년에는 문화예술 아트트리 협동조합 설립, 21년에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사업' 갈산동에 3층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공공 미술을 바탕으로 창작놀이, IT, 교육, 문화예술 기획을 바탕으로 문화복합 공간을 마련하고자 1층 공간은 "구스타"로 명칭하고, 지역 주민에게 개방 중입니다.

공간주요 용도

1층 :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카페, 대관, 원데이 클래스등 으로 활용.

지역단체에게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

2층 : 공유 작업실 (공동 창작공간, 창작 레지던스)

3층 : 문화체험공간 : 경력단절 여성 예술, 문화 등과 융합된 콘텐츠 구성

구스타 공간운영 & 공간 매입 배경

11년도부터 지원사업을 하면서 공간의 절실함을 많이 느꼈다. 20평대의 개인 작업실 공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원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해야 할 때는 개인 재료와 혼용, 공간의 물리적 제약 등이 많아졌다.

14년도 부평구 청년 창업 허브조성사업으로 지하상가 공간 5개 1년 동안 공간지원을 받으면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청년 협동조합으로 발돋움하면서 많이 성장했다.

그렇게 서서히 지원이 아닌 자생으로 커가기 시작했고, 21년 '지역자산화사업'으로 더 큰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공간이 주민 활동공간으로 바뀌었다.

공공의 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가치와 실천을 확산하는 물리적 거점이다.

공공의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이웃 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실천이 늘어났다.

공공 공간은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감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회복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새단장하여 지역이 활성화되는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하지만, 공간운영 공공지원은 양날의검이다.

언제까지 지원사업만에 매달릴 수는 없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되면 예술인 또는 단체가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자립이 필요하다. 무조건 지원하기, 지원받기보다는 구획을 나누어 지원해주어 공간운영 공공지원을 통하여 마중물의 역할을 해내고, 예술인 또는 단체는 지원을 통해 한 단계씩 나아가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문화예술 전체 지원프로그램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 단위의 프로젝트 지원이다.

문화예술 지원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는 지원을 통한 지속적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일 것이다. 문화예술 생태계의 구조를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단기 사업은 목표에 한계가 있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1년 단위의 공간 공공지원은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의 목표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간특성 적합성 / 실현가능성〉

1.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2. 지속가능한 공간운영을 위한 재원마련계획은 구체적인가?
3. 사업 지원을 통해 공간의 재정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공간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 단체에 성장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에 활성화를 더해줄 것이라 생각된다.

한상우 시민교육문화센터 십시일반 대표

1. 시민교육문화센터 십시일반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 운영하는 단체로, 민주시민교육과 생활문화 운동 두 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획자나 예술인이 활동하는 공간은 아니고,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위한 공공지원에 대한 해당하는 의견을 조금 내고자 합니다.

2. 십시일반은 회원(시민)이 문화를 소비하는 것에만 제한되지 말고, 스스로 생산자의 역할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생활문화 활동을 진행합니다. 회원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문화 활동에 대해 제안하고, 참여할 사람(회원 아니어도 참여 가능)이 5인 이상 모이면 동아리를 구성해 활동합니다. 십시일반 운영진은 강사 연결, 공간지원, 모임 홍보 및 참가자 조직화 등의 지원을 통해 모임 구성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풍물강습, 기타강습, 캘리그래피, 팔도유랑단, 맛집유랑단, 전통주, 연극반, 독서 등의 모임이 있고, 풍물강습반 외에는 비정기적이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간 차원에서 고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생활문화 활동의 긍정성은 많습니다. 십시일반 풍물강습반의 경우 인천 지역 내의 그룹홈과 3년 동안 월, 2회 함께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인천 그룹홈 행사에서 공연도 했습니다. 3년의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룹홈에서는 아이들의 양육에 풍물강습이 좋은 영향을 준다는 평가였고, 회원들은 그룹홈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적 나눔을 고민하며 사회의 어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는 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렇듯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며, 이웃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십시일반 같은 공간을 지역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삼아, 문화재단이 예술가들과 함께 공간을 이용하는 문화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회원(시민)의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고, 실제 이런저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 기준인 5인을 채우지 못해, 모임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이상에 비회원, 지역 주민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시일반 차원에서는 회원 홍보가 중심이고, 회원들이 지인을 조직해 오는 것 외에는 지역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개방을 적극적으로 고민합니다. 다른 모임들이 십시일반 공간을 강습이나 모임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십시일반 회원들도 원하면 그 모임에 참여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직장인 연극반’의 경우 십시일반을 연습실로 이용하고, 십시일반 회원들도 연극반에 참가하며 더욱 활성화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십시일반 차원에서는 지역의 모임과 소통하거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 연극반과 같은 사례를 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과 같이 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단체들을 부평지역의 문화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삼고, 문화재단이 예술가들과 함께 지역 차원의 강습을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다양하게 전개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예술가들은 시민을 만나는 기회를 더 자주 얻고, 지역 주민도 가까운 곳에서 참여하고 싶은 문화 활동을 만나고, 공간도 지역 주민들이 다녀가며 나름의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도 개별 단체에서는 제한이 많지만, 문화재단 차원에서는 부평 일대에 대해 더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기반이 확대될 때, 전문 예술인들이 하는 활동에도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도시는 시민만의, 예술인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야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5. 전문 강사 섭외 등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십시일반이 전문가나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 늘 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는 여러 어려움에 부딪칩니다. 우선 예술인 또는 전문 강사급의 실력을 갖춘 분들을 잘 몰라 강사 섭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동안은 아는 지인 관계들을 통해 강사를 섭외해 오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풍물의 경우는 방음이 된 연습실이 필요한데, 별도의 연습 공간을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강습 커리큘럼을 짜는 것도 비전문가로서는 어렵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 모임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서 상담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강사 지원이 가능한 단체나 예술인들의 명부를 작성해 연결하고, 대여가 가능한 연습장이나 공연장에 대한 목록도 제공하면 좋을 것입니다.

6. 다양한 공공지원 사업이 공모되지만, 특정 분야의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아마추어들이 모여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공간은 공모에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어려움에 부딪치고, 강사 섭외 등도 빨리 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공모 지원 공고를 보고, 지원 기한을 맞추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공모 사업의 경우 강사비와 재료비 등에는 비용이 책정되지만, 공간에 대한 비용은 책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간은 냉난방 비용, 청소 등 뒷정리, 사업 지원 등을 하는 활동가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우리 공간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만족감만 얻습니다. 공간이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간 이용

료 등의 책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 십시일반은 인천시의 오아시스 사업으로 ‘연극반 공연’만 공모 사업을 해보았습니다. 내부에서는 늘 공모 사업에 대한 지원 이야기가 나오지만, 매년 1, 2월에 진행되는 회원 총회와 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준비를 하다 보면 2, 3월에 집중되는 공모 사업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또, 상근자나 회원들도 어디서 어떤 종류의 공모 사업이 있는지 경험이 없다 보니 잘 알지 못해 늘 나중에 어떤 공모가 있었다는데 그거 한번 신청해 보았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등, 뒷북을 치기 일쑤입니다. 최소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라도 인천 내에서 공모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8. 이상 문화 활동가가 아니라, 교육문화센터라는 공간의 상근자로서 공간을 운영하며 가져본 고민을 두서없이 제안해 봅니다.

박상희 마분리공동체 팀장

문화를 뜻하는 영어단어인 ‘컬처(culture)’는 본래 기름진 토양에서 키워낸 작물로 태초에 발가벗고 뛰어놀던 우리가 가지게 된 문화, 교양, 지식을 culture라고 한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보통 ‘정신을 비옥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오랜 과거에는 문화예술을 문화를 하는 사람들의 것으로 개인의 영역이었다. 문학, 연극, 미술 등은 누구나 접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는 영역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다.

현대에는 문화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즐기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다. 여러 영역의 문화예술들이 크로스오버하는 등 문화적 독창성과 경쟁력 등을 가지고 협력, 융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해 접하고 알기 시작했다. 과거, 취미가 무엇인지 물으면 일반화의 오류일지 모르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이 ‘음악감상, 독서’ 등 단편적인 대답들이었다. 최근은 어떠할까. 같은 질문에 사람들은 ‘뮤지컬, 연극, 발레, 미술’ 등 다양한 영역의 대답들을 듣는다.

그럼 마을과 문화예술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마분리 공동체가 활동하는 부개1동과 일신동에는 문화예술을 하는 공간이 전무하다. 몇 년 전,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부개 문화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인근 초등학교인 ‘동수초’에서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 등을 한 뮤지컬 등이 공연되곤 했었지만, 현재는 그마저도 없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마분리 공동체가 2019년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누구나 이 공간에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마을주민들이 작은 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간이 협소하여 커다란 무대 등은 할 수 없지만, 작은 공예,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으며, 영화라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그런 시도들은 마을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시도, 변화하고 있다.

마을에서의 문화예술이란 거창하지 않다. 그저 마을주민들이 쉽지만, 결코 쉽지않은 것들을 마을이라는 공간 내에서 즐겁게 즐기면 그것이 문화가 된다. 그럼 마을 내 공

간의 공공지원이 왜 필요할까.

공모 사업 중 캘리그래피, 공예 프로그램, 마을 미술, 사진 등 소소한 문화를 만들어 낼 것들을 마을 내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했다. 그것은 공간지원과 여러 재료비 등을 지원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2022년 마분리 공동체는 공간의 공공지원은 받지 않고 있다. 단,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공지원만 하고있는 실정이다. 아이들은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행사에서 그 실력을 뽐내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은 지원 혹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공간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공지원을 받을 때는 재료비 등을 지원받기 때문에 주민 누구나 쉽게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료비 등은 개인이 부담하고 공간의 활동가들이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었다. 소정의 개인 부담이 있게 되면 참여율은 떨어진다.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하반기 성인을 위한 기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물론 공간운영자로서 이 부분은 고민이 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화는 무료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문화를 즐기는 것이 꼭 소비의 문제는 아니지만, 마을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을에 문화예술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문화를 소비하세요. 그리고 즐기세요.”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거의 특정 계층만을 위한 문화가 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즐길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문화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을주민들에게는 어려운 단어가 될 수 있다. 마을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계속 지원은 공간 운영진인 필자가 생각해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지원도 공간 운영진도, 마을주민들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이다.

마을 공간이 꼭 건물이지 않아도 된다. 공원, 골목 그 어느 곳이면 된다. 즐길 수 있는 문화, 소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의 공공지원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마을주민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을 내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을 위해 민관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아닐까?

박경준 벨리시모양상블 대표

유럽의 문화 선진국들은 어린이의 문화예술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민간 위주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데, 아직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평구민 중 4, 5세부터 초등학생 대상으로 '우리아이 첫 오페라'라는 내용으로 공연을 창작해 진행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마땅한 공연이 문화 공연이 없어, 부천이나 서울까지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창작 대본으로 만든 클래식 오페라 음악으로 현역 성악가들과 함께 오랜 시간 연습해서 만든 공연은 공연 후 평가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지만 작은 단체가 기획, 제작, 공연, 예산을 진행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연 제작 후 예산을 회수하려면 다 회 공연이 필수적인데 만약 다 회 공연 시 흥행이 안 되면 출연료 대관료 등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단회성 공연 몇 번으로 그쳤고 현재는 타지역에서 몇 번 진행 후, 아쉽게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시지만 매해 5월에만 일회성으로 하는 기획이 아니고 중, 장기간의 기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은 예산의 기획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공연을 일반공연이 없는 평일 오전에 무료로 대관 지원을 한다던가, 공모를 통해 다각도로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은 문화재단의 미래를 위한 필수입니다. 어려서 공연을 접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 공연장으로 돌아올까요?

그리고 1년 중 한 번이라도 부평구에 거주하는 지역음악가들뿐만 기획된 우리 동네 음악가 같은 기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타지역 출신 음악인들이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그 지역 예술가가 많아 지역 예술 생태계가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도경국 연극배우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도경국입니다. 공공지원에 대한 이해는 작지만, 배우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극의 3요소라고 한다면 희곡, 무대, 배우 그리고 4요소에는 관객이 포함되어 있는 데요.

지역에 있다 보니 무대 즉, 공연장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공 시설 부분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공연장이 조금 더 많아진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뱉습니다. 인천이라는 지역이 서울에 있는 흥대라던가 혜화동처럼 극장을 조성하기에 수요와 공급 면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소극장 규모의 극장들이 좀 더 생겨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배우이자 개인으로서 코로나 기간동안 예술인 생계비라던가 프리랜서 지원금 같은 공공지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지원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도 하였지만, 이런 기준들이 조금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예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

다시 돌아와서 연극이라는 장르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부족한 극장 수,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일 듯합니다. 평생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공모 사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연극이라는 장르 특성상 적은 지원금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극단 대표를 맡은 후로는 아직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산 부분에 많은 팀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서라던가 정산 부분에 있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도우미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같은 경우 가입한 회원들에게 미리 공지 사항 알릴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입니다. 이번에 인천문화재단에서 알림톡 서비스를 하는 걸 보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은희 영화감독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저는 영화감독이고 신영균예술문화재단에서는 교육사업 프로그래머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시나리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작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다면 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일단 영화는 아주 크게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독립영화는 여러분이 들어보신 표현으로는 다양성 영화, 예술영화라고도 말합니다.

독립영화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사비로 진행하기보다는 각종 지원사업들을 활용하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나 지역문화재단도 있고, 각종 영화제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사기업에서도 신진 작가발굴을 취지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시나리오를 평가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평가해서 지원하다 보니 감독의 역량이 곧 자본을 모으는 능력으로 직결돼 마련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100% 결정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제작비는 말 그대로 제작에 활용되고 일정 기한 안에만 제작이 완료되는 것, 프리미어 상영권 정도만 요구하게 되고 나머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영화는 수익을 내야 할 의무가 없어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든 제작비를 직접 수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주에는 독립영화 감독님들뿐만이 아니라 영화과 재학생이나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지망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독립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상업영화진영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차선책으로 작업을 하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학생들은 상업영화로 가기 위한 포트폴리오로써 독립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펼치기 위해 독립영화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상업영화에 비하여 예산도 작다 보니 스태프도 적고 장비도 경제적이라고 해서 아마추어로 모두 분류할 수 없는 작가주의 감독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대로 상업영화는 상업적 이유를 가지고 제작되는 영화이고요. 다시 말하면 자본

조금 전에 정산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대부분의 극단이 지원금을 받으면 무료 공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입이 생기면 모두 털어 내야 하는 정산 구조상 다들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해서 유료공연으로 수익 창출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생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수익 창출이 필요한 부분인데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미있고 관객들이 찾아볼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게 먼저이지만 제작비라던가 작업환경 여건상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주단체선정에도 연극이라는 장르 특성상 요즘 많이 꺼려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 대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과 장소 또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럴 것 같은데요. 부평이라는 곳에 연극 장르도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내나 관내에 활동하는 극단들이라던가 배우들 역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장르나 다른 공공지원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앞서 중요한 건 분명 먹고사는 문제이겠지요. 금전적인 이득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과 어떻게 연결하여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영문 사진작가

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자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영화를 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업영화는 독립영화와 달리 예산도 크고 운영체제로 확실해서 저 같은 상업영화감독들은 예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제작사와 피디님들 보다 아마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작품을 만드는 것만 고민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는 선에 한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업영화는 말 그대로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사실 지원사업들과는 거리가 멍니다. 전체 제작비가 원채 크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너무 적은 금액이고 그 금액을 받아서 생기는 이익보다 의무가 생기는 지점이 많아 지원을 꺼리게 됩니다. 제 작품도 전라도의 고흥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받은 지원은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협조였지 금액지원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제작이 확정됐을 때 제작 확정 전인 시나리오 작업단계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시나리오로 심사를 통해 기획개발비를 지원받기도 했고, 모 영화제에서 수상을 통해 상금으로 작업비를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될 지원사업을 바라보는 저의 태도는 상업영화감독뿐이 아니라 제가 거쳐오기도 했던,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업인이 아닌 예술가로서 전년도 하고 다분야 예술과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작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도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분야 예술가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의 프로세스는 어떠한 형태로든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러한 빈틈을 악의로 메우는 사람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저는 공공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의 요구, 공정성, 투명성, 적절성과 같은 원론적인 논의보다는, 그것을 전제로 예술단체가 아닌 창작자 개인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준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술가 개인의 입장에서 창작과 관련된 공공지원을 바라볼 때, 지역 정체성과 특색을 반영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성(regional characteristic)의 직접적인 반영이 아닌 예술적 가치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성과 예술성(the artistic)의 논의는 다시 원론적인 논의가 될 것이기에,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저는 창작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해 만나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저와 주변을 돌아볼 때 떠오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작자들 가운데에는 공모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점은 물론 행정과 관련된 업무 능력 전반에서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음

예술단체의 경우 조직구조를 통해 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반해, 개인 창작자들 가운데에는 기본적인 지원사업, 공모 시스템 등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행정과 관련된 업무 능력 전반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입니다. 행정업무 역량 갖추기의 당위성과 같은 논의에 앞서 당면하는 현실은 서류구성, 기획단계의 행정적 요소들, 관리와 정산에 이르기까지 창작자가 공공영역에서 지원되는 지원사업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원사업 공모에 성공하면 작품 활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업이나 자기 분야의 외주작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외의 것들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진페스티벌 사례 소개 - 기획/운영/행정 역량의 부재로 인한 문제들

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개항장 국제사진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을 맡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도 한중일 작가 7명의 작품 70여 점을 전시하였고, 2021년에는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폴란드, 파키스탄, 네팔, 이란, 체코 등의 56개 예술대학의 교수, 학생들이 보내온 수천 점의 작품 가운데 350점을 선별하여 전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중국에서 400점이 넘는 작품을 보내오기도 했는데요. 예산을 비롯하여 특히나 행정, 운영 등 인력 연계를 하지 못해 내년도 유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실상 주최 측이 저와 류은규 작가님 사진가 두 명뿐인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할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원정책의 개선은 물론 중요 하지만 창작자와 기획자 혹은 운영자가 만나고 네트워크하여 프로젝트를 위한 매칭이 활발하다면 더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저를 비롯하여 저의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창작자들 중 다수가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공모에 필수적인 서류 양식, 전산시스템, 적절한 문체나 키워드 같은 어법, 예산 구성과 관련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재단과 같은 조직이 도움을 주시는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라는 ‘보상’이 뒤따르는 네트워크 활동이라는 인식은 적극적인 참여자들을 유치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획을 위한 다양한 소재와 주제들은 지역성뿐만 아니라 작가의 개별 창작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지역성이나 공공영역의 요구(needs)와 연결하는 능력은 창작자들보다는 기획자들에게 탁월한 역량입니다. 한편에서는 가능한 한 자유롭게 작품을 공유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획에 필요한 소재나 주제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지만, 문화예술분야는 가치가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장성을 지닌 대중문화콘텐츠 일부를 제외하면 이러한 소위 ‘발굴’ 혹은 ‘섭외’의 프로세스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공공지원의 영역에서 다양한 작품과 활동들을 돌아보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기획 전 단계의 작품 및 콘텐츠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한 예술 활동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이 부평구문화재단과 부평문화도시팀을 통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제안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유상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원장

5분 발언

서광일 잔치마당 대표

김진희 구스타 대표

한상우 십시일반 대표

박상희 마분리공동체 팀장

박경준 벨리시모양상블 대표

도경국 극단 사람 그리다 대표

이은희 영화감독

방영문 사진작가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팀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문화도시센터 시민팀장 김유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문화도시 부평 포럼 공공지원 방식의 전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난 7월 29일에 진행되었던 포럼에 이어 공공의 지원방식을 수혜자 친화 방식으로 전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자와 지원을 받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도시 사업 더 나아가 기초문화재단의 지원방식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현장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공간 창작 시민 기획자로 분류하여 총 14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제한된 시간 동안 진행하게 된 것이 다소 아쉬운 감이 있지만, 오늘 토론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싶다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 공간운영 창작예술을 위한 공공지원, 2부 시민 청년 기획자를 위한 공공지원이라는 토론 주제를 가지고 의정부 평생학습원 유상진 원장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찬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찬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번에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게 된 이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공 문화예술 분야와 특히 이제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공공지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방식들과 또는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문화재단이고 인천광역시문화재단하고는 다른 유사한 성격이 있음에도 저희가 문화도시를 하면서 다양한 예술단체들이나 지역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초문화재단이 여러 선생님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같이 주고 에너지를 모아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 토론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별곳이나 여러 곳에서 활동했던 선생님들, 또 지역의 문화재단하고 함께 여러 가지 연대를 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부평구가 문화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 문화재단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과 다양한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이찬영 대표님의 환영사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 평생학습원 유상진 원장님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원장

소개받은 유상진입니다. 2022년 문화도시 부평 토론회 공공 지원 방식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3시간 동안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1부에서는 공간 운영 창작예술을 위한 공공 지원과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고, 잠시 쉬었다가 제2부에서 시민 청년 기획자를 위한 공공지원을 주제로 이렇게 두 섹션으로 나눠서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간단하게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서광일 잔치마당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자기 성함과 단체를 말씀해 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일 잔치마당 대표

안녕하세요.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입니다. 잔치마당은 부평에서 1992년도에 창단했고 올해 창단 30주년 기념을 지난 7월에 했습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을 접하면서 예술 세계가 힘들 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들 한 명도 정리하지 않고 깨끗하게 30년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저는 30년 동안 어떻게 버텨왔는가 그리고 30년을 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런 걸 조금 고민했는데 그런 내용 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구스타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구스타 대표 김진희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아티티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에 지역 자산화 사업으로 건물 매입을 하면서 공간 운영을 자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설명이 저희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우 십시일반 대표

시민교육문화센터 십시일반 대표 한상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문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시민들이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공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마분리공동체 팀장

마분리공동체 팀장 박상희입니다.

저도 문화예술을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부개1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지역의 공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공간에서 아이들, 주민들과 어떻게 문화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경국 극단 사람 그리다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사람 그리다 대표 도경국입니다.

저희는 연극을 하는 단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 대표라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뛰는 연극배우, 연출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은희 영화감독

안녕하세요. 영화 하는 이은희입니다.

방영문 사진작가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 방영문이고요. 이전에는 홍유컴퍼니 아트디렉터 그리고 회사의 이사를 하다가 지금은 개인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상진

1부 순서는 오늘 참여하신 토론자분들이 각 5분 발언을 하실 거고, 40분 정도 공동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나누시고 공동의 과제나 향후 논의될 추가적인 과제에 대한 것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다음 3시 35분까지 진행을 하고, 10분 정도 플로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유토론 후,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더 모색할 수 있고, 보다 더 풍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토론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부 공간 운영 창작예술을 위한 공공지원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서광일 잔치마당 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일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서광일

단체 마당 서광일 대표입니다.

저희는 30년 동안 잔치마당을 운영하면서 지금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우리나라에서 각종 문화예술 분야의 공모사업이 시작됩니다. 우리 단원들은 이 비수기 때 공모사업 사냥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쪽을 지원해 주고 있는 모든 기관의 공모사업을 아침에 오면 한 시간 동안 훑어보고 관련 분야를 나누어서 쓰면 1년에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10%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한 6개월 열심히 벌어서 12개월 먹고사는 것을 30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상당히 지치네요. 어쨌든 간에 30년 정도 이 바닥을 했으면 최소한의 공모사업 사냥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해에, 내년에는 어떤 작품을 구성해서 어떤 작품으로 경쟁력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또한,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우리 예술계가 너무나 큰 사각지대에 있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에 코로나 확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출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각 부처마다 해당이 될 텐데 문화 쪽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대출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 전혀 그런 것 혜택을 못 받고 비싼 이자로 대출받아서 지금까지 갚아 나가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화도시가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 무엇이 핵심이나 라고 할 때 문화도시가 되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런 자리로 지역 예술가를 계속 만나 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얼마나 크게 주는 지원사업 개념이 아니라 부평에서 활동하고 많은 예술가들 또 그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 사업이 진행 되는 5년 동안에 정말 씨앗이 되고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진

못 하신 말씀은 토론회 때 해 주시고, 이어서 김진희 대표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진희

구스타 대표 김진희입니다. 공공의 공간은 지역 주민의 사회 유대성을 형성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물리적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라고 볼 때 공공지원 사업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술인이나 지원 단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지원 사업을 찾아야 하고, 떨어지면 뭘 먹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서 지원 단체든 예술인이든 어떠한 자생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재단 쪽에서도 1년 단위보다는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1년 사업에 충력을 기울여서 하고 12월이 되어 정산하고 나면 저희는 2, 3개월을 놀아야 합니다. 또 내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달에만 집중적으로 해야 하니 공공지원 사업이 생태계 조성이나 목표나 효과를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서 3년 차 정도의 기간을 주어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인이나 단체 공간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해서 재원이 마련됐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재원이 마련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단체를 계속 지원하면 쏟아붓기 지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원을 받는 단체 또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클 수 있고 나아가 자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구체적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좋고 사업 지원을 통해서 공간 재정 안정성도 기대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성과 공간특성이 적합한지를 따져서 지원자를 선정해야 그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진

다음은 한상우 십시일반 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반갑습니다. 저희는 시민교육문화센터입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크게는 민주시 민교육과 생활문화활동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공간이고 그 회원들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활동을 하는 공간이라서 사실 전문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원들의 문화 활동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풍물반만 문 닫고 나머지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고 싶다는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못 만들고 있습니다. 풍물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 강습만 받는 것 이외에 서로에 대해 이해하며 지금 사회에 대한 선들도 넓어지는 등 그런 긍정적인 과정들이 부가적으로 생겼습니다. 회원들의 문화 활동이 더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저희 같은 공간에서는 이것들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연극반인데요. 연극반은 원래 인천에 있던 모임이었는데 그분들이 공간 연습할 공간이 없다고 찾아 오신 것을 시작으로 지금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시고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라고 했더니 몇 분이 참여하셔서 함께 공연들을 해냈습니다. 그분들도 연습하러 오셨다가 이런저런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 강의도 오시면서 회원 수가 늘어났더라고요. 저희 공간이 평소에는 쓸 일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다양한 모임을 위해 열어놓고 싶은데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언가를 배우러 움직일 때 가까운 곳에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부평의 거점마다 저희 같은 공간에서 예술인들이 강사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기

획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들만 바뀌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려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들 몇 분이 공간마다 순서를 바꿔서 하면 서로의 주민에게도 좋고 저희에게도 좋고 그렇게 좀 더 확대되는 과정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한, 공간 문제를 상담해 주는 시스템도 있었으면 합니다.

유상진

한상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공간을 생활권 문화 기반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한상우 대표님께서 지역의 문화 기반 시설들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희 마분리공동체 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박상희

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팀장 박상희입니다. 현재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부개1동과 일신동을 예로 들어본다면 부개1동과 일신동에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예요. 예전에는 행정복지센터 3층에 부개문화사랑방이 있었는데 문화사랑방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나 교육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이후로는 마을 주민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시 들어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2019년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이 마을에 뭐가 필요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공예나 작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저희 공간에 와서 캘리그라피라든지 영화를 감상하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구성을 했었어요. 하지만 2022년인 올해에는 아이들 교육 사업 외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인천문화재단에 문을 두들겨보았지만 저희가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제약도 있었고 전문 감사님이 계시지만 증빙과 활동내역 제약 때문에 저희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주민분들도 문화예술을 무료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아져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건 맞더라고요.

공공지원은 양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공공지원 자체가 잘 되고 있어서 주민분들이 문화예술을 편하게 즐길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문화예술이 소비가

돼야 하는데 그냥 무료로 배우고 아니면 말지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마을 주민과 의견도 나누며 소비할 수 있는 것들, 즐기면서 마을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진

감사합니다. 박상희 마분리공동체 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공간이 많죠. 그런데 공간이 어디에도 없는 곳이 있지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도착하신 박경준 대표님 간단하게 단체 소개를 해 주시고 오늘 준비하신 내용 5분 정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경준 벨리시모양상블 대표

안녕하세요. 벨리시모양상블 박경준입니다. 저희 단체는 클래식 공연을 기획하고 연주하는 단체입니다. 10년 전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여 그날 시간이 됐던 제가 같이 보러 갔어요.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알고 있었던 뮤지컬은 배우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배우 입이랑 음악이 안 맞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봤더니 립싱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동업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니 그 출연료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현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클래식 공연을 어린이 대상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제작한 것이 미취학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아이 첫 오페라’ 공연이었어요. 공연은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다회성으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되어 준비를 했지만 여러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공연장 대관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잘 안 되면 제가 빚잔치를 하게 생긴 거예요. 물론 문화재단에서 하기도 했지만 일회성이더라고요. 출연자는 적어도 한 달, 두 달 연습을 하는데 1회만 가능하니 너무 미안해서 공연을 접었습니다. 대관부터도 문제가 있고, 전국 어디를 찾아봐도 4년간 지원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공연 기획 수가 줄어들고 결국 아이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못 보게 되는 사태가 벌어

지더라도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전용 극장을 부평에 하나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진

감사합니다. 어린이 전용 극장이 사실 전국에 많지 않죠. 다음은 도경국 극단 사람 그리다 대표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도경국

안녕하세요. 극단 사람 그리다 도경국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배우로 한 20년 이상 활동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경험해 봤던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술가라는 문화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봤고 그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전 부평에 어떤 예술인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도 몇 분 빼고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네트워크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협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 때 서로가 돕고 왕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무보수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필요로 하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정도를 안다면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극하는 사람으로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극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획도 제가 해야 하고, 연출도 제가 해야 하고, 글도 제가 써야 하고, 배우도 제가 출연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면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런 지원 사업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무언가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조성된다면 문의와 피드백을 통해 저희도 도움을 받으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역 내에서 공연장이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로야 극장 단지가 조성돼 있고, 장기 공연이 가능하고, 일반 관객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단지가 조성돼 있지만, 아직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조성된 단지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문화도시로 나아간다면 이런 공간적인 것도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으로 갈 수 없는 것들의 무대를 제작하면 보관할 공간도 많지 않아요.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질적으로 높은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진

감사합니다. 앞서 박경준 대표님께서 어린이 공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우리 도경국 대표님께서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연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감독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은희

영화의 이은희입니다. 제가 인천 부평에 25년 살았는데 여기 불러주셨다는 게 더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고, 주부이고 항상 지하철을 타고 나가야 감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어떤 역할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감독이고요. 지금은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에서 교육 사업의 책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시나리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는 크게 독립영화랑 상업영화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영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다양성 영화나 예술영화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가장 중요한 성격을 드러내는데 사실 개인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영화를 찍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독립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영화진흥위원회나 지역 문화단체 혹은 영화제에서 지원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감독의 역량으로 예산을 따오다 보니 그 예산에 대한 권한이 거의 100% 감독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예산의 장점은 감독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고 자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 예산들이 굉장히 난감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화를 제작하는 예산을 지역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데 지역에서 생각하시는 그 예산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어쨌든 상업 영화의 태도는 그렇지만 또 상업 영화를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도 시나리오를 쓰고 혼자 개발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기획개발 당선이 되어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게 될 지원 사업을 바라보는 저의 태도는 상업영화 감독이기도 하지만 제가 거쳐왔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작가의 입장, 부평시민으로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 학부모로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진

이은희 감독님은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 의제를 제안해 주지 않으셨으니 토론 때 다른 분들의 의견에 대한 청원이라든지 아니면 부가적인 의견, 아니면 그걸 통한 감독님의 다른 시선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부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방영문 사진 작가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방영문

안녕하세요. 사진 하는 방영문입니다. 제 주변에 저희 선후배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인데요.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직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해 저희 같은 개인 창작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원 사업이나 공무 시스템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능력 전반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은 당연한

서류 구성이나 기획 단계의 행정 요소, 그리고 관리 정산에 이르기까지 창작자가 공공 영역에서 지원되는 지원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요. 지원 사업 공모에 성공해도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업이나 자기 분야 외에 외주작업을 하면 생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 자신의 작품 활동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 계양장 국제사진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을 맡아서 쪽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저희가 한중일 작가 일곱 분의 작품을 70점 전시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400점이 넘는 중국 작품을 저희가 섭외해서 전시를 했는데 문제는 올해 저희가 저희 돈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비롯해 행정 운영, 인력 등 저희가 연계를 전혀 못 하다 보니까 내년도는 유지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정책 개선을 전제로 창작자와 기획자가 만나는 네트워크에 대해 저 또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참석자들 다수가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서류 형식 전산시스템에 적절한 단어나 키워드 같은 예산 구성과 관련된 역량 또한 부족합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는 구성원 간 세부 이해가 없으면 사실상 매칭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매칭이 아닌 숙성의 시간이 그만큼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라는 보상이 따르는 네트워크 활동이라는 인식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치하는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기획을 위한 다양한 소재나 주제들은 지역성뿐만 아니라 작가의 개별 창작물 안에서 창의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가능하면 자유롭게 작품을 공유하고 그다음 기획에 필요한 소재나 주제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이것이 대부분 콘텐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예술 분야에서는 이 가치가 수익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시장성이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 이외에 다른 콘텐츠들은 발굴이나 판매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공공지원 영역에서 다양한 작품과 활동들을 돌아보기 위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획 이전 단계의 작품 콘텐츠 발굴,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한 예술 활동 기반이 지역사회에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장이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 등을 통해 마련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유상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원장

토론

서광일 잔치마당 대표

김진희 구스타 대표

한상우 십시일반 대표

박상희 마분리공동체 팀장

박경준 벨리시모양상블 대표

도경국 극단 사람 그리다 대표

이은희 영화감독

방영문 사진작가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유상진

토론자 입장에서 다양한 논의 주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지원의 문제점을 제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는 비용 규모가 되게 작다. 지원 신청 시 여러 가지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 정산과 결산의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지원 정보를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술위원회 등 중앙단위 단체들의 지원 사업도 있고 부평구문화재단이나 인천문화재단의 지원도 있겠죠. 혹시 지원사업을 받으면서 수행하시면서 이런 지원방식은 되게 참신했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사례가 있으셨는지요.

김진희

저는 올해 처음 부평별곳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지원사업을 꽤 오래 했는데 작년까지 몰랐던 부평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신청했어요. 그런데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예산 집행이었던 것 같아요. 30만 원 이하는 영수증 첨부 안 하더라고요. 나라의 지원 사업만 계속하다 보니 영수증 첨부도 많았고, 서류 문제도 굉장히 복잡했는데 영수증 간소화가 돼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제가 몇 번 여쭙봤어요. 정말 이런 사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행할 때 편하게 집행을 했고요. 제가 10년 동안 지원 사업하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편하게 했던 건 처음 같아요.

유상진

김진희 선생님은 부평구문화재단이 시행한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정산에 대한 문제는 항상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였죠. 여기에 저희가 살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함과 행정적 부담이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공공 재원은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납세자 주권이라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국민과 상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거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모은 세금은 세 가지 원칙에 써야 된다. 첫 번째, 예산 즉 세금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두 번째, 생산성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충분한 성과를 내도록 써야 된다. 세 번째, 이게 아마 이제 제일 논란이 될 텐데 신뢰성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과연 네 돈이면 너는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라고요. 이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이런 공공지원을 쓰는 데 있어서는 책임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원 사업에 있어서 행정의 벽이 높아진 것은 그동안 오류가 났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 지원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 쓴 만큼의 책임도 져야 하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이런 양자 간의 상호 권리와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광일

공모사업을 하면 1차 서류 심사가 있고 2차 인터뷰 심사가 있는데 인터뷰 심사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관에 인터뷰 심사를 하러 갔는데 심사위원들이 10분에서 30분 정도 밀착으로 컨설팅을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어서 상당히 보람 있었습니다.

유상진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점이 있는데 최근에 일반 대기업에서 하는 면접 방식이 바뀌었어요. 면접을 보고 나면 보통 탈락에서 끝나 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들은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리이러한 점들이 좀 모자랐고 이런 점들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주는데 이게 응시자들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면 당연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보다 어떤 점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다면 이것도 역시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문화진흥원을 포함한 여러 중간지원조직에서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평에서 문화도시를 하면서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나 대안들을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준

부평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흥부놀부전이라는 작품을 넣었는데 안 됐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인천문화재단에 넣었는데 됐더라고요. 그리고 인천문화재단은 심사위원의 평이 나옵니다. 부평은 제가 여쭙봤지만 안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10년 이상을 했지만 신인들은 안 됐으면 내년에 보충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됐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 서류를 그대로 넣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되고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심사를 한다는 게 심사를 받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그걸 심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심사를 하시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걸 밝히면 안 되는 건가요?

유상진

일단 밝히면 안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예를 들면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100인의 심사위원 풀을 구성하죠. 제안을 받아서 엄격한 선정 작업에 의해서 100인의 심사위원 풀을 꾸리고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거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인 거죠.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볼 수가 있어서 어떤 일관되고 공정한 지원 결과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게 이성의 영역보다는 문화예술은 감성이고 감성의 영역이잖아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그런 면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선정이 되고 어떤 거는 선정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 이긴 합니다만 그건 어느 면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심사위원이 보는 각각의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지금 유상진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심사할 때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그분들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떨어진 분들도 컨설팅을 해서 어떤 부분을 보충을 하셔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입장에서 누가 누구를 심사하고 떨어뜨리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 지금 박경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모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특히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 더군다나 그쪽으로 아예 방향을 잡고 가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상진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서광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피드백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면 이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완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제안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상희

박상희 마분리공동체 팀장입니다. 부평별곳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부개소극장에 대해 알아봤어요. 주변 마을 분들에게 여쭙어봤는데 사이버 종교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로 연극을 하는 연출자분이 저희 마을 사업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팸플릿 같은 것을 계속 보내 주시지만 거기가 부평별곳 사업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11월 말에 공연을 하고 나서야 그것이 부평별곳 사업인 줄 알았고, 시민극단을 하고 계시는 걸 인지했어요. 사실 부평별곳 사업이 소극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보나 홍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정보가 마을을 돌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을 굶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부평구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포스터 하나 붙여주시면 홍보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재단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유상진

박상희 선생님이 제안하신 문제는 우리 부평구 문화도시 또는 부평구 문화예술계의 정보 제공이 잘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고 여기 네트워크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공공이 만든 이런 정보 제공 네트워크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관이 정보를 입력한 게 아니라 아까 박경준 대표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술가나 기획자들이 자기 정보나 자기 공간 정보를 올리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 역시 홍보가 안 돼서 그랬을까 여하튼 보면 홈페이지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재단 관계자들이 1년 365일 모든 정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올려주셔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요.

황유경

사실 이렇게 실제로 얼굴 보고 만나는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민회인데 여기서 혹시 시민회 가입하신 분 계실까요? 저희가 시민회에 1천명이 넘는 분들을 가입시켰거든요. 시민회에 가입하시면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리려고 행복센터에도 붙이고 여러 가지 행사할 때마다 가입을 유도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카카오톡의 부평구문화재단 채널에 가입해 주시면 거기에도 모든 정보가 뜨는데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알리려고 노력하고 또 함께하시는 분들은 찾으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부 토론회에서 나온 안은 지원사업 결과의 피드백과 컨설팅 시행,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자, 정보 제공 플랫폼이 현재 부재하고 취약한 것을 개선하자는 세 가지 안건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한상우 십시일반 대표님께서 민간 예술가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홍보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려운 점이 단순하게 십시일반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예술가와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오아시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지요.

한상우

저희는 그냥 회원들의 동아리 사업이고 오아시스 사업은 저희가 연극반을 하고 있는데 기존 직장인 연극반이 저희 공간을 연습 공간으로 삼으면서 저희 이름으로 공모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2년 차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공모사업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5인 이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최소 강사료를 내야 하는데 사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자가 많으면 좋겠는데 많지 않을 때는 모임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유상진

한상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컨설팅이나 홍보 지원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주제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도경국 대표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가와 기획자들의 네트워크를 강조하셨거든요. 특히 서울 성북구를 보면 공유성북원탁회의라는 예술가, 기획자 네트워크가 있어요. 도경국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예술가, 기획자들의 네트워킹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경국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천에 어떤 팀이 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음악이나 다른 전체적인 행사나 기획 단체는 많은데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연극이나 공연을 위주로 하는 기획자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몇 팀들, 서울 쪽은 개인이 기획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소개도 받고 움직임도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도 잘 모르니 스스로가 배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문화재단에 기획프로그램 강의가 있으면 저도 그냥 들어가서 온라인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니까요. 요즘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강의도 많이 한다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 장을 누군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어디에 있고 어떤 분야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 똑같은 것 같아요. 정보가 없다 보니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안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이거나 기획하는

사람들만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났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봅니다.

유상진

대표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안을 드리면 네트워크은 고구마 줄기 판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네트워크 파티를 많이 해요. 연극 단체나 공연 단체가 많진 않지만 그분들을 중심으로 첫 번째 네트워크 파티를 하면 그분들이 또 다른 네트워크에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눈덩이가 굉장히 큰 눈덩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문화도시에서 이런 기획자 예술가 네트워크를 한다면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초기에 멤버들을 발굴하시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단체와 자기가 연관된 예술가 단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경국

작품을 만들고 쇼케이스를 할 때 주변에 공연하던 사람, 내가 아는 지인들, 선생님들 이외에 기획자분들이 보고 피드백을 들으며 무언가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맥이 없어요. 저희들이 무언가가 통해서 알아야 네트워크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유상진

이 문제는 방영문 작가님도 지적하신 문제이신데요.

방영문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관심도도 중요하지만 채널 자체에 너무 무지한 탓도 있어요. 제가 일상에서 겪었던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2019년까지 손흥민 선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대청도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됐었는데 그만큼 정보 접근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방식 또한 많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플랫폼이나 채널에 대한 상호 이해가 서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는 정보 제공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진

이은희 선생님 아까 이제 시민의 학생 입장에서 지켜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크게 네 가지의 논의가 있는데 덧붙여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은희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여성영화계에서 시나리오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다섯 작품이 경쟁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나리오가 더 진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명한 영화 제작자들에게 서포트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거기에서 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연결이 돼서 그 회사에서 제작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시나리오가 그 감독님과 회사에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이 노출 안 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왜 나를 뽑았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과정이 공격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공개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들은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극 공연을 할 곳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영화를 공공의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주면 불법적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인건비가 굉장히 살벌하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조정할 수 없다면 공연장이나 영화관 같은 공간을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업이 어쨌든 기록물로

다 남아 있잖아요. 홈페이지도 좋고 여러 공유하는 방식이 있지만,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다면 그만큼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유상진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 좀 눈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서도 우리 도경국 대표님께서 해 주신 활동을 촬영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걸 올려주실 수 있으시고요.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여쭙고 답을 해주셔도 좋고 자유로운 말씀이 좋으시면 부평구 문화재단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시나요? 그 외 일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공공지원에 대한 의견을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모자 쓰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선생님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요?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질문자

혜택이 없어서 잘 안 들어가 봐요. 문화도시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제 주 활동지는 경기도하고 서울인데 도봉구에 있는 흰고무신 마을극장에 개관식부터 참여했어요. 공연도 하고 영화도 틀고 사진 전시도 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탐구도 하고요. 기획 단계부터 해서 도봉구에 있는 문화센터장님하고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회의하곤 해요. 좀 다른 얘기인데 혹시 여기 부평구에 이런 공연장이나 극장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게 설립이 돼야 예술가의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유상진

공공 극장에 대한 추가적 건립 계획이 있나요?

황유경

제가 구청장님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 얘기 못하지만 저희 재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아트센터 안에 소극장이 있고 아마 구에서 이 정도 규모의 극장을 가진 곳이 없기 때문에 극장을 더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앞 15분 거리에 문화 거점 공간들을 만들려고 민간하고 협업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평 별곡사업이에요. 선생님들이 현재 계시는 이 공간 이름이 문화공간 시소인데요. 문화공간 시소처럼 공공영역에서의 공간들을 조금 더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가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 아까 말씀 주셨던 안타까웠던 문화사랑방은 현재 부평문화사랑방이 있기에 그런 정도의 가까운 곳에 거점 공간을 더 만드는 거지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의견을 내시는 것도 반영하여 이런 자리들을 계속 만들고 어떻게 공공재원을 투여해서 등 그것은 사실 부평구의 능력으로 그런 정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민간하고 협업해서 공간들을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진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활동하시면서 공공지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속 터진다 등 생각하시던 걸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규(질문자2)

안녕하세요. 저는 1-신포니에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형규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시각 예술 분야 베이스를 가지고 활동도 하고 지원금도 받고 이 나라 도우미 사업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공연 예술 쪽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정산하는 부분에서 시각 예술 베이스는 결과물이 나와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까 부평문화도시센터에서 30만 원 이하는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된다는 걸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공연 예술 분야는 결과물을 페이퍼로 제출하는 것 보다는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페이퍼로 하는 것은 정량평가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위주로 해 나가는 문화도시부평이 되기를 기대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진

에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나왔던 얘기는 5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원 사업의 결과에 피드백과 컨설팅을 시행하자. 두 번째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자. 세 번째 정보 제공 플랫폼이 현재 부재하니 이런 취약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강사 공간 단체 예술가들의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자. 네 번째 예술가 기획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전문 예술가 기획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들은 향후 문화도시센터에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도 좋고 이와 관련된 개선이 이루어져서 얘기를 하면 변화한다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공지원 방식의 전환 모색 제1부 공간 운영, 창작·예술을 위한 공공지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자 원고

김동균 시각작가

▶ 개인의 욕구와 공공의 이로움이 상생하는 공공지원의 명분은 적합하며 실효는 있는가?

- 실효가 없지는 않다. 대학교를 마친 2013년부터 동인천 배다리마을 내 막걸리양조장을 재생한 문화공간인 <스페이스빔>에서 일하며, 배다리마을을 비롯하여 신포동, 경동 일대 창작자, 기획자, 공간운영자, 헌책방운영자, 마을주민분들이 공공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화하여 탄력-동력을 확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 공간의 성장과 네트워크 형성-연대 같은 상호작용도 직접 목격했다. 또한, 문화예술지원, 작가선정 공모 등에 관해 2010년부터 점차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공모-지원사업들이 전개되는 모습을 여러 작가와 공간들을 통해 목도 해왔다. 실효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명암이 뚜렷하다.

- 공공지원이 창작자, 기획자의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문제점 ① : 지원금이 이야기하는 생각의 함정과 굴레]

- '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원금'이다. 취지 그대로 '당신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활동-행위의 일부를 지원하여 능률-효율-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 지원사업에서는 '지원금'이 지원금으로써의 역할을 넘어 기획과 활동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문제점은 기획자나 창작자가 어떤 것을 만들고 행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풀어가고 만들어 가는 시각, 생각, 접근, 상상 일체가 '지원금의 규모'에 휘둘린다는 것이다.

-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라면 1,000만 원 분량의 내역은 지원사업 선정과 증빙을 위해 그것대로 마련하고, 그 외 자신의 기획-창작의 만들새, 완성도를 높이고 방향성-취지에 부합하는 +a(플러스알파)는 자신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라고 했을 때, 기획자로서 선택 갈래는 두 가지다. 1,000만 원 스케일의 기획을 만들어 지원하거나, 1,000만 원은 공공지원으로 획득하고, 그 외 나머지 비용은 자신이 충당하는 1,000만 원 이상 스케일의 기획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원금과 지원사업에 익숙해지거나 그것을 획득한 경험이 많은 기획자, 창작자들 중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이들만의 잘못은 당연히 아닌데, 가령 이런 식이다.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참여자들의 인건비를 재능기부 수준으로 책정하고, 딱

그대로 지급한다거나, 애초 기획 취지와 다르게 획득한 지원금에 맞춰 행사 규모, 내용을 줄인다거나, 완성도를 위해서 500만 원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자신이 충당해 퀄리티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30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거나..사실 지원금이 적다고 참여자들에게 적은 인건비를 줄 게 아니라, 지원금에서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은 자신이 단기알바를 하든, 월급을 받는 일을 하든, 그 외 기타 등등 돈을 만들 수 있는 뭔가를 해서 수혈해야 한다. 300만 원 밖에 못 받아서 참가비를 10만 원 밖에 못 줘요, 가 아니라, 300만 원을 받았든, 100만 원을 받았든, 그 사업의 참여자에게 합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50만 원 이라면 50만 원을 어떻게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원금의 규모’라는 생각의 함정 속에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지원금의 규모가 기획자-창작자의 창의력과 상상력까지 갉아먹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지원사업의 굉장히 심각한 폐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 어디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취미의 영역과도 겹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수백, 수천, 수억의 지원금을 받고 또 그것으로 자신이 목적인 것, 기획한 것을 하는 분야는 없다. 우리가 갖고 싶은 물건, 하고 싶은 취미가 있을 때 지원금을 신청하면 국가가 구매비, 활동비를 주는가? 옷을 사고 싶을 때, 맛있는 것이 먹고 싶을 때, 여행을 갈 때, 친구를 만날 때, 데이트할 때, 모두 다 자신들이 가진 돈, 번 돈으로 하지 않는가.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기업이나 벤처투자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향후 ‘회수될 반사이익’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지원사업은 그 지원금이 현금, 배당금, 주식, 부동산과 같은 ‘직접 수익’으로 환수되지 않는 형태로, 그 가치와 이익이 간접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으며, 전방위적이고, 사회 각계에 촘촘히 영향을 미쳐 작용하는 구조다.

- 이런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면서 그것에 대해 외부에서 돈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창작자-기획자-공간운영자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공공지원사업은 이러한 ‘위험한 함정’을 만들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세심한 설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원사업이 그 정도 단계에 이른 것으로는 당연히 비쳐지지 않는다. 순기능만큼이나 역기능도 많은 것이다.

[문제점 ② : 지원금과 지원사업에 강약되어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악순환]

- 앞서 말한 지원금의 의미적 속성과 근본적 취지에서도 드러나듯, 문화예술지원사업 만으로는 창작자-기획자-공간이 ‘절대로 자립’ 할 수 없다.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창작자-기획자-공간이 지원사업의 굴레 속에 창의력, 상상력, 자구책을 퇴색당하고 점차 지원금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지원사업을 택하다가, 나중엔 ‘지원금이 없으니 못하지’라는 이상

한 주객 전도적 자가당착에 도달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되고, 그것을 위한 결과를 만들고, 그것을 검사-점검받고, 그것에 대해 증빙을 하고 이 사이클에 들어간 상태에서 창작-기획-행사 진행-공간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에너지-역력-품-시간이 <지원사업 관련 일 + 창작-기획-공간운영 관련 활동>으로 양분되기 쉬운데, 사실 이 두 가지만 하기도 벅차고, 녹록지가 않다.

- 바운더리 안에서 일하는 실무자이건, 공공기관과 용역이든 지원사업이든 이를 같이 하는 창작자-기획자-공간운영자든 공공의 행정 기준과 제약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고, 본질로부터 동떨어져 가고 있다. 진솔하게 말해서 ‘공공과는 뭔가를 도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속에서 저 두 가지 과업만 수행하기에도 창작자-기획자-공간운영자는 상당히 힘들고,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과업 외에 ‘진정으로 창작과 문화 행위를 위해 필요한 대안, 방법, 방책, 생존능력’을 따로 키워가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면 매년 악순환만 반복되고, 대안, 방법, 생존능력은 그것대로 계속 부재하게 되어, 결국엔 지원사업 없이는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문제만큼이나 끔찍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지원사업의 복잡하고 까다롭고 실무와 동떨어진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이를 더 조장하는 측면도 많다.

- 내가 아는 지인도 인천문화재단 문화기획지원사업에 지원해 2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200만 원에 대한 지원금 사용과 활동내용을 증빙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과 품이 요구되었다. 200만 원 규모에 말이다.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행정적 처리와 증빙하는데 품을 들었던 것 같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았다. 내가 옆에서 지켜봤을 땐 차라리 일주일이나 열흘간 쿠팡 같은 곳에서 단기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그냥 지원금 없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훨씬 시간 절약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대개 지원사업들이 다 이런 식이다. 나 또한 2019년에 연극 및 오페라 공연장을 운영하는 선생님과 1,000만 원 짜리 지원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인천문화재단 요청사항에 따라 완전 fm대로, 그 어떤 수정요청이나 지적사항도 안 나올 정도로 정산-증빙을 했더니 서류 분량만 거의 300페이지 넘게 나왔다. 1,000만 원 짜리 사업이었는데 말이다. 이걸 다 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므로 종이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낭비 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산화탄소로 환원해도 엄청난 환경파괴다. 공공기관이 녹색 경제, 환경보호 운운하면서 앞장서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증빙 요구에 전국 수만 명의 창작자-기획자-공간운영자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니 이것 또한, 천문학적인 낭비다. 예술작품을 만들고, 문화예술행사, 전시를 기획하고, 문화공간을 만들어 운영할 정도로 고급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수증에 사면 안 되는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보느라, 누락 된 영수증을 재발급받으려고 문구점, 카드사에 전화해 키패드 누르느라 귀중한 능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 이 얼마나 전 국가적인 낭비이며, 이렇게 넘겨진 자료들을 보며 영수증에 사 먹으면 안 되는 과자나 구입하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10만 원 넘게 쓴 물건이 재산성인지, 소모성인지 근데 왜 소모성인지 재산성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금액인 것인지 나보다 더 수명이 길어 보이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을 법한 5천 원짜리 스텝플러나 가위는 왜 가격이 싸단 이유로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이 같은 철학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실무자들의 고급능력과 시간은 또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 것인지 이 굴레 속에서 진정한 생산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소모적인 부분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규정들이 여전히 그대로이거나 수위가 더 높아져 가고 있다.

▶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대안 ① : 최상위부처의 변화]

- 일단 문화도시 사업이든, 문예위 사업이든, 재단 사업이든, 가장 중앙에 해당하는, 상위에 해당하는 부처에서부터 변화해야 한다. 증빙에 도움도 안 되고, 실질적 효과도 없는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행정규정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e나라도움같이 네이밍부터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증빙 도구, 규정을 일체 폐기해야 한다. 기준이 까다롭고 증빙이 어려울수록 비리를 저지르기 쉽지 않겠냐고 으레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방식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그걸 마스터했을 땐 가리고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잘 보이고, 방식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비리-횡령이 더욱 고도화, 고립화되어 발견하기도, 알아채기도 어려울 수가 있다. 그 어렵고 복잡한 시스템을 역이용해서 횡령과 비리를 설계하고 증빙처리를 완벽하게 하여 제출했을 때, 거기서 허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찾아낼 자신이 있는가? 그 복잡한 데서?

- 이렇게 그 시스템을 마스터한 이들은 시스템을 악용하더라도 걸리지 않고, 되려 사업을 열심히 잘한 사람들이 몇몇 규정을 안 지키거나 놓쳤다고 지적을 받고, 감사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성실하게 증빙까지 다 마쳐놓고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위부서에서 아무리 대안을 시도해도 한계가 있다. 최상위부서가 바뀌어야 한다. 문체부, 기재부 같은 곳들이 바뀌어야 하고, 이런 논의들이 최상위부서의 바운더리에서 진행되어 의견반영이 되어야 하고 전환되어야 한다.

- 현행 지원사업 증빙 제도는 사실상 그것을 마스터하면 정말 그 어떤 방식으로든 위조, 조작할 수 있다. 복잡성, 고난이도 이런 요소들이 충분한 실효성을 띄우기보단 소모적인 낭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 ② : 무엇이 가능할까, 몇가지 방안의 제시]

〈행정과 증빙의 간소화 + 온라인플랫폼 활용〉 “효과적인 플랫폼들을 최대한 활용”

· 서류작성량을 최소화하고,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도 실무, 현장여건에 맞게 확대

· 지원종류에 따라 영상촬영이 충분한 효력 지니는 것으로 판단 가능할 시엔, 유튜브에 활동이나 결과에 대한 촬영 동영상 업로드하고, 그것을 사업담당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빙.

다른 방식에 비해 조작하기 어렵고, 부가적인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확인하는 입장에서 빨리 돌리기 등으로 빠르게 내용 확인을 하면서도 증빙도 가능. 유튜브는 서버 용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업로드를 위해 따로 서버 이용료를 내거나 유료실비지출을 할 필요도 없음. 촬영은 폰으로 해도 되고, 전문 영상 촬영본을 업로드 해도 되는 것으로 유동적으로 규정제시.

- 지원금이 말 그대로 지원금 자체로만 충실할 수 있게, 상호보충적인 공공적 대안 구축

〈창작자-기획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문화예술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 분야 창출”

· 파견예술인제도의 한계와 제약을 넘어서는, 확장된 성격의 예술인 고용정책 추진
· 사회 여러 영역에 걸쳐 창작자, 기획자가 필요하거나 어떤 역할을 맡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정규직 일자리 구축.

· 최소 월 200~2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자-기획자 연계 일자리를 만들어 이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와 연관된 활동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며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유도.

분야를 다각화, 세분화하여 고용인력 수를 늘리고, 업무가 한쪽에 과중하게 쏠리지 않게 하여 일을 하느라 본연의 창작-기획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체계구축.

〈공공과 문화예술종사자 간 큐레이션 관계 구축〉 “각 분야 간 중개, 연대, 협력 통한 자립능력 양성”

· 창작자-기획자-공간운영자 전반에 걸친 공공과 문화예술종사자 간 큐레이션 관계 구축. 공공이 창작자-기획자-공간운영자의 능력과 역할, 공간이 필요한 민간-기업과 이들을 연결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 및 프로젝트를 도모할 수 있게 중개역할 수행. 특정 개인, 집단에만 연결이 몰리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공과 네트워크상에 있는 창작자-기획자-공간운영자들을 지속적으로 순환하여 제시하고, 새로운 개인-집단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

·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시, 이에 부합하는 기능, 속성을 지닌 문화공간과 수익계약을 체결하여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공공-민간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고, 문화공간은 재정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익을 획득하는 시너지 구조 구축.

김정근 (주)드림필 대표

· 대기업부터 인기 있는 음식점, 카페, 패션 분야 업체까지, 자본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자본을 모이게 만들며, 이것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구조와 인프라를 만드는 데 성공한 이들과 문화예술종사자들을 매칭하여 문화예술종사자들이 가진 가능성과 콘텐츠, 문화예술자산을 상업화, 자본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이템을 개발. 자본의 속성과 기능을 알고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과의 협업과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종사자들이 스스로 재정적인 자립을 성취하여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유도. 이러한 역할을 공공이 중간자로서 수행.

· 공공의 문화예술정책은 이제 더이상 '고기를 주는 정책'에 머물러선 안 되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종사자를 더이상 '돈 없고 상황이 어려운 지원 대상자'로 보아선 안 된다. '고부가가치를 가진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투자대상자'로 보아야 한다.

1. 개인의 욕구와 공공의 이로움이 맞닿는 공공지원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공공지원의 필요성은 개인적 견해이기는 하나 개인의 욕구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 생각되며 추구하는 이념이나 방향성이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나의 활동과 역할규정에 따라 다양한 루트로 받은 지원 중에 무엇이 가장 나에게 유익했나.

- 결혼이주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들 대상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면서 과정이 끝난 후 취업 과정이 연계되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3. 지원받은 나쁜 경험이 무엇이 있는가.

- 인천시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사업 중에 00단체를 통해 진행하던 수업 중 강사의 태도 및 응대 부분의 미숙함으로 수업 자들이 이탈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 다른 사례는 지역을 위한 공모 사업이 리더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기획 단계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몇몇 모인 일부 임원들을 주체로 매듭지어지는 등의 사례를 보면서 누구를 위한 공모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4. (각자의 위치에서) 공공지원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 제가 진행해본 공모 사업은 보통 인건비(강사비)나 재료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라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공모는 수행자들에게는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난방비, 냉방비, 회계 처리 등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의 지원이 안 되다 보니 해마다 느끼는 부분은 내년에 또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5. 공공입장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들에게 알리는 홍보는 늘 부족한데 내가 경험한 가장 편리한 방식은 무엇인가.

- 공모 사업의 홍보는 기획자 의도의 공모 기획이 아니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가가 관건인데 이점을 생각하고 기획을 한다면 대상을 정한 상태와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홍보 부분은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6. 새로운 지원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가?

- 지원 단체가 공모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었는가? 분류 세분화

- 지원 단체가 공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목 추가 예) 냉·난방비, 회계 처리 인력이나 사업수행 관리자 인건비 지원, 대관료 등 지원 필요
 - 공모 사업을 연 단위에서 1~3년 지속적인 지원 예) 양성>>육성>>취업연계과정
7. 부평구문화재단/문화도시부평/부평구 범위 내에서 개선하거나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공공지원은 무엇일까.
- 전반적인 콘텐츠 사업들을 공공기관 간 연계하는 것을 확대하여 지역의 우수한 민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함께 부평이라는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김순지 북극서점 대표

문화기획자로서 의뢰받는 일 외에 보다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문득 떠올라서 가슴이 떨 때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뜻이 맞는 다른 기획자분과 함께 하고 싶은 프로젝트, 혹은 좋아하는 예술가분들을 만났을 때 저희 지역에도 이분들을 소개하고 함께 즐겨워하고 싶어요. 그럴 때 문득 좋은 지원사업이 없을지 여러 문화재단의 공지 사항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그냥 두근거리는 꿈으로 멈추는 일이 많은데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각종 기획서와 보고서, 필수 참여 회의, 필수 참여 교육, 너무 많은 증빙 서류들로 괴로웠던 지난 지원사업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사업별로 다르고, 시간이 지나서 간편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정보 또한 실제로 다시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어서 두려움을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정 의무사항에 대해 보다 간편해지고 장점이 많은 지원사업이라면 공고에 강조해주시면 지원자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기 프로젝트가 아닌, 한두 개의 공연이나 북토크를 운영하고 소정의 대관료나 기획비를 받을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라면 지원 절차를 정말 간소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기획에 비해 정해진 예산이 적을 경우가 많습니다. 소박한 예산으로 소박하게 진행하는 기획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의뢰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페이지 많은 기획과 시기가 겹칠 경우, 대부분 가슴만 뛰고, 페이지 소박한 기획을 선택하기는 어렵거든요. 예산의 규모를 달리해서 다양한 크기의 문화행사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지원사업 규모별로 기획자 페이지도 달라질 텐데요. 지역 기획자들 몇몇 분께 미리 문 의해서 지원사업의 공모 조건에 적용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서를 의도와 구성, 예산까지 제대로 작성하는 것에는 일주일 정도 고민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지원에 떨어지게 되면 기회비용이 꽤 커지니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피드백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왜 떨어지게 되었는지 컨설팅을 받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생각보다 적은 공모 사업이라면 기획서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를 책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번에 지원한 경험이 다음 지원에 가산점이 될 수도 있지요. 이외에도 지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피드백을 구상해보면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모든 지원자가 부평의 문화자원이니 함께 성장하는 주체로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모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
그리고, 이미 전문 커리어를 가진 문화기획자들의 경우에는 간단한 기획 방향과 구성이 담긴 러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지원이 확정되면 실제로 본격적인 기획서를 써서 자유도를 높은 오픈형 지원사업도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문화기획은 어느 한순간 번뜩 떠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생활 속에서 관찰하며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시간이 지나며 발전시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역의 역량 있는 문화기획자들이 부평에서 기획하는 것이 정말 편안하고 자유롭고 간편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평소에도 부평의 지역이나 문화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
네 번째, 새로운 무언가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를 경우 이 아이디어는 푸시식, 하고 꺼져버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가 과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평의 시민들은 과연 어떠한 종류의 문화 활동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를 설문 조사 후 공유해주시면 이런 불안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축제, 연극, 플리마켓, 공연, 전시 등 분야별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부평의 공간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장소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필요한 지원사업 공고에 파일로 공유된다면 많은 기획자의 아이디어에 불을 붙여 실제 기획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중 답변하고 싶은 것 /

5. 공공입장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들에게 알리는 홍보는 늘 부족한데 내가 경험한 가장 편리한 방식은 무엇인가.

-
부평문화재단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을 독려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지원사업 소식을 전달받으면 놓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평문화재단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하는 시민들에게 공모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무료 문화 프로그램들이 홍보되면 기획

자들은 홍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참여율이 좋지 않더라도 자신의 공간이나 팀의 이름이 많은 시민에게 이미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끌리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핸드폰 문자는 전화번호를 공유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큐알코드 팔로우 이벤트를 통해 채널 구독자를 모집한다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편안히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새로운 지원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가?

-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새로운 공간에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싶은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상업적으로 활성화된 공간에 매달 프로그램이 바뀌는 팝업샵이 있고, 그곳을 통해 전시나, 아트상품 판매, 공연 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면 시민과 예술가들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관료 없이 무언가를 기획할 수 있고, 기획비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인기 있는 지원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

또한, 이것은 이미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일 것 같지만 관객, 그러니까 대상이 이미 정해진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보육원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 등의 소외계층이나 동물권, 기후위기 등 특정한 주제에 관심이 높은 집단이 참여자로 이미 내정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의 경우, 아무리 좋은 행사가 있어도 그 정보 또한 제대로 가닿지 않고, 이미 이런 문화 자원을 충분히 많이 공급하고 있는 가정이나 시민이 또다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지원사업의 주체에 소외된 관객까지 확실히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특정한 주제의 경우 그것이 대중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기에 그러한 주제로 기획을 할 경우 모객 등이 불안해서 쉽게 시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관객을 미리 확보한 후 다른 외부 시민들에게도 참석을 열어두면 보다 실험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마음 놓고 기획하고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많은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브랜딩에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홍보되는 것의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평문화재단은 도로를 향해 커다란 현수막을 걸어두십니다. 이러한 홍보 현수막에 지역 예술 공간이나, 예술가, 작품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분께서 지원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와 출력비,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들이는 품은 적지만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설이나 간판, 월세 지원 등 정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정말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딘가를 고치고 싶은데 어렵다거나, 정말 필요한 시설이 있다거나, 당장 올해 월세가 막막하다거나, 대부분의 문화공간이 내부적으로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투자와 생활비 중 생활비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자신의 공간을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응원과 리프레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민 몬스터레코드 대표

1. 인천문화생태계(인맥)

인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지만 문화예술기획 활동을 하면 할수록 실력보다 인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물론 버티다 보면 알게 되는 인맥들이 쌓이겠지만 인천의 문화생태계에서 상위에 존재하는 누군가와와의 인연이 없다면 문화예술 사업을 진입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새로운 인재들이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이다.

2. 지원사업의 한계와 방향

지원사업은 마약과 같은 것 같다. 한번 맛을 본 단체는 지원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지원금을 마치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 아니겠는가? 지원사업을 생계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방향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나의 자금으로 해야 맞다. 세금을 통한 예산 활용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문화 사업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3. 자생적 구조 개선

지원사업을 위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업들은 자생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자생 단계에 진입한 단체나 기업들은 사실 지원이 중요하진 않다. 결국, 자생력이 없어 지원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생력이 없는 단체나 기업들은 지원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도 없다.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에 좋은 사례로 남는 단체나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방법을 답습하는 지원사업의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 심사를 아무리 까다롭게 하더라도 더욱 치밀하게 걸러 낼 수 없는 방법들이 생겨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조화현 i신포니에타 단장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2004년 창단된 실내악단 i-신포니에타는 2005년 무렵 공공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인천문화재단 역시 2004년에 창립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이 첫걸음만 단계였다.

인천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사업이 재단 사업과 중복되며 여러 혼선을 겪기도 했었고 예술단체나 재단 직원들조차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시행착오 또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공공지원을 받으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예술인들이 어려워하는 서류작업이며 지원서류의 어려움 이상의 정산서류로 가중되는 스트레스는 그 이상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많이 완화되고 간소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술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주위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

어떤 부분의 지원이 절실한가?

각각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연단체의 경우 예산산출 시 도록이나 팸플릿 등 인쇄비보다 가장 큰 지출은 공연비이다. 그러나 인건비 비율, 홍보비 비율 등을 명시해 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산출을 하게 될 경우 인건비가 턱없이 모자라지만 줄여도 되는 홍보 인쇄비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지출해야 하는 일이 아직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며 2~3년 전부터 대표의 인건비가 경우에 따라 산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역시 인건비 총액의 10% 내지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의 규제 조항이 있다.

본 단체의 경우 실내악단으로 운영 된다.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을 모토로하기 때문에 연주자는 물론이고 공연해설자가 필요하며 클래식 단체의 특성상 매 공연 기획과 연출이 필요하다. 또한, 클래식 실내악단은 꼭 필요한 악기 구성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인건비 규정에 묶여 연주자를 줄이거나, 말도 안 되는 공연비를 지급해야 하거나 다른 비용에서 예기치 않은 편법이 발생 되기도 했다.

i-신포니에타의 경우 사대보험이 적용되는 정 단원제로 단원들이 운영되며 연습 수당, 공연비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었기에 공공지원이 절실했지만,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서류작업, 연주, 공연사회, 기획까지 전담하는 대표에게 돌

아오는 것은 늘 서류 더미에 쌓여 밤샘 작업을 하는 일이 늘어가고 공공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단, 초청공연으로 얻어지는 수익에서 조금이나마 충당할 수 있었다.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에 대한 인건비는 많이 완화 되어짐에 비해, 인천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인건비는 일반 단체의 인건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5인 이하 단체공연 1인당 몇만 원 수준의 기막힌 조항이 있어, 설득과 투쟁으로 바꾼 경우도 있었다.

2021년 이후 본 단체는 공공지원에 대한 신청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지원금이 얼마 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싶어 노력했던 공연이 있었는데 요청하는 대로 정산서류를 만들고 보니 백과사전 3~4권의 분량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보완요청을 받았는데 이유는 활동비 명목 중, 무선 마이크에 사서 끼운 배터리 사진을 찍어오라는 거였다. 이미 공연이 끝난 지 몇 개월이 지난 데다 배터리 영수증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첨부라니!!

게다가 그 정산의 경우 인터넷에 모두 입력하는 절차로 진행함에도 서류는 서류대로 또 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책 중 “문화예술 분야는 정부가 간섭하면 망한다.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라고 했다.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시간에 서류에 매달려 있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다. 특히 e나라 도우미의 사업일 경우 입력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술가들이 공연이나 창작활동 시간에 사무실이나 서류에 매달려 있기도 참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왜 직원을 쓰지 직접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무실 운영도 직원 유지비용도 공공지원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의 지원과 정산은?

모니터로 대신 해야한다.

지원을 한 곳에서 모니터를 하거나 직접 현장 실사를 한다면 뻔히 보인다.

500~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이라면 현장 실사를 통한 무정산을 실행해야 한다.

언젠가 한 공연장에서 초청공연을 진행한 일이 있다. 또, 같은 공연장에서 대관 공연을 진행했던 적도 있었다. 그 같은 공연장에서 단체와 예술인을 대하는 건 천지 차이였다.

예술가들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예술혼도 나오고 창작열도 불타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좌장

유상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원장

5분 발언

김동균 시각작가

김정근 (주)드림필 대표

김민성 부평문화도시센터 시민팀 팀원

김순지 북극서점 대표

이강민 몬스터레코드 대표

조화현 i신포니에타 단장

유상진

시민 청년 기획자를 위한 공공지원을 주제로 2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자들의 5분 발언, 그리고 이어서 심도 있는 토론, 그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자유토론 순서로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균 작가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균 시각작가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균이라고 하고요. 시각 예술 작가이기도 하고 시흥시에서 유희하수 처리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에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획자로서 활동하는 측면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노수진 선생님이 초대를 해주시게 됐고요. 5분 발언은 오늘 토론 주제와 연결해서 몇몇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작성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평과 부평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주요하게 봤던 질문 중 하나는 개인의 욕구와 공공의 이로움이 상생하는 공공지원의 명분이 적합하면서 실효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실효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대학교를 마치고 2013년부터 동인천 배다리마을 안에 있는 막걸리 양조장을 재생한 문화공간인 스페이스 팀에서 일을 하며 배다리마을을 비롯해서 인천 신포동, 경동 일대의 창작자분들, 기획자분들 공간운영자분들 그리고 헌책방 운영자분들과 마을 주민분들이 공공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일을 하시며 가능성을 발휘하고 탄력과 동력을 확보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 지원 사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그 지원 사업들의 명암은 되게 뚜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이 창작자와 기획자 그리고 공간운영자의 자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모르겠다는 쪽에 가까운데요.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지원금이 이야기하는 생각의 함정과 굴레라고 경리를 해봤는데요. 지원금은 취지 그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활동 행위의 일부를 지원해서 능률과 효율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상당수의 지원 사업에서는 지원금이 지원금으로써의 역할을 넘어 기획과 활동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때의 문제점은 기획자나 창작자가 어떤 것을 만들고 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풀어가고 만들어가는 시각, 생각이나 접근, 상상 일체가 지원금의 규모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천만 원 분량의 내역은 지원사업 선정과 증빙을 위해서 그것대로 마련을 하고, 그 외에 자신의 기획과 창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자신이 직접 마련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대개 1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 선택이 생기는 거죠. 1천만 원 스케일의 기획을 만들어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1천만 원은 공공지원으로 획득하고 그 외 나머지 비용을 자신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1천만 원 규모가 넘어가는 스케일의 기획을 하는 것인데 지원금과 지원사업에 익숙해 지거나 그것을 획득한 경험이 많은 기획자 창작자 중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만의 잘못은 아닌데 가령 이런 식의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참여자들의 인건비를 재능기부 수준으로 책정하게 된다거나 애초 계획과 다르게 획득한 지원금의 규모에 맞춰서 행사 규모나 내용을 줄인다거나 완성도를 위해서 5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그 부족한 만큼의 비용을 자신이 직접 충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300만 원 지원받은 예산에 맞춰 퀄리티를 줄여 사업을 진행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지원금이 적다고 해서 참여자들에게 적은 인건비를 줄 게 아니라 지원금에서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은 자신이 단기 알바를 하든 월급을 받든 돈을 만들어서 수여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참가비를 10만 원밖에 못 줘요라고 얘기한다든가 300만 원을 받았든 100만 원을 받았든 그 사업 참여자들에게 합당하게 지급해야 할 금액들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든 지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원금의 규모라는 함정에 빠져서 기획자와 창작자의 창의력과 상상력까지 갈아먹게 되는 심각한 패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말씀해 드리자면 지원금의 의무적 속성과 근본적인 취지에서 드러나듯이 문화예술 지원사업만으로는 창작자 기획자 그리고 공간운영자들이 절대로 사실 자립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말 그대로 보조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창작자, 기획자와 공간운영자들이 지원사업의 굴레 속에 갇혀 창의력과 상상력을 퇴화 당하고 점차 지원금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지원사업을 택했다가 나중에는 지원금이 없으니까 못 해라는 이상한 주객전도적인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결과를 만들고 그것을 점검받고, 증빙을 하고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 사이클이 시작돼요. 이 사이클과 함께 자신이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사이클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창작이나 기획을 하기에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거나 자신만의 자구적인 수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의 분리에서 봤을 때 자립이 저하되는 모습들이 발견되는 게 지원 사업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봤어요.

바로 대안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런 부분의 어려움은 사실 문화도시 지원 사업을 받은 부평구나 그 외 문화재단 같은 지역의 하위 기관들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기재부나 문체부 정도 선에서 실질적인 대안이나 지원 사업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여 최상위부서가 바뀌어야만 시스템이 바뀌고 그 아래 지원사업들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 외에는 지원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행정 과정과 증빙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엔 예술가들이 지원금에 계속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건강하게 창작을 할 수 있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견 예술인 제도는 한계와 제약이 되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공공과 문화예술 종사자 그리고 자본을 가진 기업이나 민간사업자들 간에 큐레이션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공공에서는 예술가들한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진

감사합니다. 김동균 작가님께서도 우리나라의 지원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종합 패키지를 담아주셨네요. 김정근 대표님의 말씀을 듣기 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는 국가 사무라고 생각해서 법에 딱 있어요. 국가가 대행해주니까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돌 때 인건비랑 운영비를 같이 줘요. 그런데 문화예술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취향의 문제와 표현의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아니고 보조금이예요. 인건비랑 경성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보는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두들겨야겠죠.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근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드림필 대표

반갑습니다. 일단 소개 먼저 드리자면 저는 2016년부터 퍼스트 피플 국제 전통 예술 공연단을 운영했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 이주민들의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9년부터 최근까지 꿈 체험이라는 기업으로 활동하다가 아무래도 직원을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 사회적 기업이라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지금 법인을 설립해서 활동 중인데요. 글로벌 인재 양성도 하고, 육성도 하고 공연단도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법인 설립이라는 취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들을 너무 많이 잘 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긴 한데 간단하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지원의 형태나 방식들은 다양하겠지만 그중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기획, 정상화 부분에 대해 경험한 사례를 통해 장단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사업의 필요성 및 오해 부분에 대한 의견인데요. 지역에서 새롭게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나 모임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지원은 꼭 필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체에서 공공지원의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공공지원을 받는 것을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획, 운영했던 공모사업은 보통 주관 단체, 직접 인원 및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 사업 정도를 제가 많이 다뤘었는데 외부 강사 및 재료비 부분만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형태이죠. 이런 부분을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할 경우에는 설명이라든지 회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모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인데 지역 요구나 필요에 의한 공모사업은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나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임원이나 한 개인의 리더가 이 사업들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공공사업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떤 사람의 의지로 이런 사업을 왜 펼쳐가는지 저는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세 번째는 공공지원의 새로운 전환에 대한 제안이에요. 보통 인건비나 재료비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의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수행자들에게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회계라든지 단순 인건비라든지 정산 부분이 지원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평구문화재단 쪽에서는 가만히 공모사업을

내놓고 지원자들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해서 같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상진

공공지원은 수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공공지원 규모 자체도 작으세요. 공공지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업 진행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민성 선생님의 토론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팀 팀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팀에 속해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원사업을 지원했던 청년으로서 느꼈던 부분과 재단에 들어와서 직원으로 일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지원사업을 거의 올해부터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다양한 곳에서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한 6, 7개 정도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초심자로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다들 말씀해 주시는 서류 제출 부분이 아닐까요. 저 또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많은 증빙 자료들이나 특히 돈이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직원으로 소속되어서 리뷰를 해본 결과 지원을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투자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결과가 따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증빙 서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원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음 사업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계획서나 사업 진행에 관해 필요한 서류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는 절충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소비할 때 대중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평가 자체에 맹렬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개인의 취향에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과감히 지출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한다는 거고, 특히나 자신이 팬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 과감히 금전적으로 투자해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청년들 중에서 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을 하실 때 관객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에게 유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유상진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화 소비 형태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지 북극서점 대표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김순지 북극서점 대표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자그만 독립서점을 운영하면서 여러 문화기획도 하고 또 책을 쓰거나 노래도 만드는 잡상인 북극서점이라고 합니다. 너무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나왔던 기획서나 보고서 같은 경우 지원사업을 할 때 결을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전문 문화기획자로 주로 인천시청이나 관광공사, 여성문화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과 일할 때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럴 때 수의계약으로 하면 사실 보고서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당연히 예산서도 깔끔하게 정산하면 되게 간편하단 말이에요. 유독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힘들게 몇백 원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지 같은 기획자인데 사실 이중 잣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수의계약이랑 지원사업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선택하겠죠. 저 같은 기획자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역량은 있으나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애매한 위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오픈형 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러프하게 제안서를 내고 확정이 되면 더 자세하게 기획서를 쓰고. 그리고 보고도 수의계약만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컨설팅이라는 피드백을 원하신다고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인천청년축제라고 영상 제작을 위해 17팀의 아티스트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한 50팀 정도의 예술가분들과 조금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피드백이 꼭 컨설팅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서구문화재단에 의뢰를 받고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20곳의 공간이나 예술가분들에게 컨설팅을 해 드리는 일을 했거든요.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구요. 저는 붙은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 드렸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떨어진 것 중 이만큼만 바꾸면 다음에 붙으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기획서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부평에서 찾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진

문화예술에서도 벤처 사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강민 몬스터레코드 대표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강민 몬스터레코드 대표

문화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를 운영 중인 몬스터레코드의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적인 기획자 집단이기 때문에 거의 매출의 80%를 기획으로 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원 사업 그 단어 자체가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지원을 주는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지원이면 지원이지 왜

사업을 하라고 할까. 2014년에 저를 포함해 3명의 친구들이 모여 첫 해 2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봤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그다음에는 1억을 받았고, 그 다음 해에는 2억을 받아왔어요. 2억을 받아서 운영을 해보니까 엄청 힘든데 돈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지원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저희가 하는 게 사회서비스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더 사업화를 시키는 데 집중을 했고 현재 20명의 임직원과 10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거의 가장 규모가 큰 기획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에 대한 취지가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저는 지원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각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파일럿 정도의 프로젝트일 뿐이지 그것을 사업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분명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성향 자체가 활동 위주의 지원금인지 아니면 이 지원을 통해서 사업화를 시킬 수 있는지를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는 그런 지원금으로 받았던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해서 영업을 다녔습니다.

저희가 공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현재 저희 회사는 계양경기장이라고 아시안게임 경기 이후에 쓰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서 한쪽은 카페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한쪽은 기획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뭔가 약간 도시재생적인 느낌이 나는 기획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게 또 잘 돼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망에 있는 캠핑장 주인께서 저희를 찾으셔서 캠핑장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코로나를 캠핑장으로 이겨내는 기적 같은 일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예술가분들에게 필요한 건 활동비고 기획자들에게 필요한 건 기획 비용, 사업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자분들이 예술가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분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술도 하면서 기획도 해야 하고, 기획도 하면서 사업도 해야 하니까 본인의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정산화가 1년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기획자분들과 예술가분들의 지원과 사업의 경계를 나눠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진

에 이강민 대표님 토론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화현 I-신포니에타 단장님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조화현 I-신포니에타 단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2004년부터 I-신포니에타라는 실내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조화현입니다. 인천에서 나고 자라면서 누군가에게는 선배처럼 멘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벌써 20년째 실내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실내악단은 현악기 베이스 피아노와 성악단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인천문화재단이 막 시작될 때 인천시에 지원 사업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서 초청했을 때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자비를 들여서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도 2004년도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단하고 같이 시작한 단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 20년쯤 되고 나니 굉장히 큰 단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옆에 있는 우리 이강현 대표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 수 없이 가내수공업 하듯 연주도 하고, 진행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아서 재원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습니다. 단원들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만 저는 코로나 직전까지도 단원들을 4대보험에 가입해 주고 월급을 주는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원도 받고 또 초청공연도 받아 직원도 2, 3명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또 코로나가 터지고 공연이 줄고 나니까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도에 단원들에게 마음껏 공연을 하게 해 주자라는 취지로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을 만들고 나니까 자생력이 생겼다고 판단해서 저희에게 더 이상 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팔아 공연을 하고 싶었지만 인천 시민들께서 티켓비를 녹록하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서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 감독을 해서 그 비용으로 우리 단원들과 직원들의 비용, 또 공연장의 비용을 충당하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저희는 거의 1년에 한 150회 정도의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입소문이 굉장히 많이 난 편이었어요. 하지만 공모사업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는 운영되기가 힘든 처지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공모 지원사업을

내지 않는 이유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모 재단에서 2, 3년부터 기획비를 지원금에서 10% 정도 책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전체 금액의 50% 이상을 인건비로 주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는 공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일 필요한데 홍보비나 다른 사업비를 쓰더라도 인건비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 중에서 50%면 300이잖아요. 그중에서 60만 원 정도가 기획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240만 원을 10명이 넘는 단원들에게 배분하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공모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예술 분야는 정부가 간섭하면 망한다,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모든 재단이나 지자체에서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보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유상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원장

토론

김동균 시각작가

김정근 (주)드림필 대표

김민성 부평문화도시센터 팀원

김순지 북극서점 대표

이강민 몬스터레코드 대표

조화현 i신포니에타 단장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유상진

에 감사합니다. 2부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섯 개 항목으로 정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원사업이 자립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존성을 높이지 않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행정의 간소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가, 기획자들의 행정업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네 번째는 예술가 단체 기획자들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하나는 예술가 기획자들의 새로운 활동, 예술가와 기획자들을 발굴하자 이렇게 5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논의는 앞서 진행한 일부 논의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단장님께서 굉장히 논쟁이 되는 건을 제안해 주셨거든요. 암스랑스 팔길이원칙이에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영국 예술위원회의 지원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단장님께서도 지원하고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다, 팔길이원칙은 말 그대로 팔길이다. 서로의 약속에 벗어난 경우에는 개입한다 이런 해석도 하시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1부 주제와 2부 주제가 연결되고 또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팔길이원칙의 맥락에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김동균 작가님께서도 팔길이원칙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특히 스페이스 빔에서 활동을 해보셨는데 공공이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균

저도 팔길이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원을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 창작과 기획 그 기획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지를 하는데 사실상 공공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나 이런 것들을 제외했을 때는 예술가, 기획자, 공간운영자들이 지원이나 공모사업이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아이템, 전시 작품 등을 계획안으로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 비윤리적인 측면으로 지나치게 빠지지 않는 이상 주제나 콘텐츠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많이 제약하거나 제재를 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공통적으로 지금 다들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행정적인 규약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는 거예요. 2022년인데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요구하는 서류의 수준이나 증빙 수준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저도 시흥시 경관디자인과 공무원분들이랑 일을 하는데 공무원분들조차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에 관련된 규정을 모두 100% 알고 진행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자기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연락이 와요. 다른 부서에 그 부서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확인해서 공무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걸려, 이 규정을 해결하고 해야 돼 그러면 또 그걸 해결하는 데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해결해서 진행하면 이번에는 다른 데서 연락이 와요. 이런 식으로 공공의 규약이라는 게 거의 백과사전급으로 비대해지고 방대해지고 있어서 사실상 팔길이 원칙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행정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가장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봤던 게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대용량 메일서 문제가 생겼나 봐요. 원래는 한 1~2기가까지 다 코리아메일로 공무원분들한테 자료를 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필이면 대용량 메일로 공무원 사회 내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해결책으로 뭘 제시했다면 대용량 메일 보내지 마라, 대용량 메일 안 열리게 바꿔라라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서 하위부서로 뿌린 그 사람이 정말 과연 컴퓨터를 하는 사람은 맞는 건지, 행정고시 이런 거 보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 텐데 내놓는 대안은 초등학생이 더 잘 내놓을 것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제일 어려운 시험까지 통과해서 만든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황당한 대안들이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 규정을 계속 반복해서 막고 있기에 저는 팔길이원칙을 가장 저하하는 요소는 행정 규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진

감사합니다. 이강민 대표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토론문에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 행정에 제약이 많은 공공지원이 민간의 의존성을 자꾸 취약하게, 더 의존성을 높이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도 민간 영역에 계시긴 하지만 행정에서의 지원사업도 해보셨으니 이와 관련

해서 대안이나 행정 절차의 간소화는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안 같은 걸 해 줄 수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강민

예를 들어 공연을 아까처럼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인원이 많잖아요. 사실 1천만 원 미만 정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큰 금액일 수 있지만, 공연을 하는 어떤 대규모로 움직이시는 인원이 많으신 분들이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공연을 머티어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크지 않거든요. 편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을 경해 놓으면 공연하시는 분들,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제약이 풀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처럼 지역 활성화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기획을 해서 뭔가에 대해서 사업화를 시켜야 하는 이런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기획자들한테는 물론 제안을 받아야겠죠. 더 큰 제안도 받고 pt도 받고 더 확실한 증빙도 받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필요한 거지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별도의 활동 지원정책의 심사 기준이 필요한 거죠. 활동가들이 사실 영수증 모으고 카드 어떻게 쓰는지를 일일이 증빙하고 그걸 붙이고 있을 시간에 더 연습할 수 있고 예술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줘야 맞다라고 저는 기획자 입장에서 생각해요. 문제 될 정도로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의 사업비 제한을 두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상진

이강민 대표님이 흥미로운 제안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지원과 사업의 분리가 재밌는 제안인데 황유경 센터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유경

이강민 대표님이 제안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쓰고 있는 돈 자체가 보조금 사업이라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분리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많은 부분을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술가나 전문가 들하고 일할 때는 되도록 계약 관계로 일을 하려고 하고, 계약 관계로 일을 한다는 것은 과업에 대한 내용을 약속하고 그 결과를 실현하신다면 계약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는 거고 지원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만 지원사업인 거고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원인 거예요. 저희는 시민들하고 하는 것은 되도록 계약 관계를 해보려고 500만 원까지는 거래증명서를 안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행정의 틀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통장 거래 내역과 한 건이 30만 원이 넘을 경우만 거래 명세서를 받기로 했어요. 지원의 영역에서 통장 내역으로 받는 거는 완전히 처음이에요. 그 다음 아까 선생님들 몇 분 참여하셨던 부평별곡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이미 운영하시는 분들을 간략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상진

이강민 대표님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강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술가한테는 활동비가 필요하고 기획자한테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술가가 사업비를 받아서 증빙하는 시간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자체를 공모를 통해서 예술가를 지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빼고 예술가 뭐뭐 공모 이게 뭐 지원 공모해서 하면 어쨌든 그것은 활동 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공모이기 때문에 증빙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취지가 더 강력한 거고 어떤 사업이다라고 하면 사업의 결과물을 뽑아내야 되는 것에서 취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

획적 역량이나 사업성을 보고 심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문화 예술도 웃긴 얘기잖아요. 문화가 결국에는 예술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고 이 단어가 합쳐진 것도 이상한데 지원 사업도 이상한 거니까 분리하는 작업을 해서 지원 체계에 대한 구축을 더 단단하게 하고 예술가분들한테 활동 영역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 다 잘 쓸 수 있게끔 모니터링만 잘하면 되는 거지 현장에 나가서 진짜 공연을 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음향비는 얼마를 썼고 등 세금계산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음향팀 같은 걸 붙여주든지 그냥 인건비로만 다 측정해 주든지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안 되니까요.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사업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거나 기획적인 영역에서 지역에 관련돼 있는 이 예산이 시민들한테 진짜 쓰였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는 건 사업화를 시켜야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화현

제가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원해서 공연을 받을 때와 초청에서 공연을 받을 때, 그 초청에서 공연 받을 때 계약해서 그냥 그쪽에서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면 되고. 제가 늘 하는 말을 우리 이강민 대표가 하셨는데 나가셔서 모니터링 하시면 돼요. 그 단체가 이 정도 가격에 공연을 잘하고 있는지 이 정도 가격에 전시를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평가하시면 뭐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기준 자체가 그 단체의 어떤 역량을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초청과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굉장히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상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강민 대표님의 제안이 혁신성이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데 예술가 활동과 기획자의 사업 지원을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는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성이나 물론 시범기관이 필요하겠지만 잘만 되면 문화예술 지원의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높

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은 후속적으로 계속 이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유경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자도 예술가 영역 안에 넣기 때문에 기획자나 예술가나 똑같이 최대한 사업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기획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개념으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강민

예술가하고 기획자하고는 달라요.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가는 본인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에 더 집중해야 맞는 거고 기획자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 줘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본인이 연결하니까 사업성을 잘 가지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지만 자기한테 냉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획하는 사람은 냉정하게 볼 수 있단 말이지요. 기획자는 어찌됐든 간 네트워크 안에서 허브의 역할을 해줘야 하고 예술가는 그 내용을 채워주는 훌륭한 소재가 돼야 하는데 지원사업 자체가 예술가를 지원한다면서 기획자를 꿈꾸게 만들고 행정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예술 활동은 예술 활동으로서 인정을 받는 취지를 가져야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나는 기획자면서 예술가고 예술가면서 사업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예술가하고 협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가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저희 회사에는 저를 포함해 12명의 기획자가 있는데 명확해요. 저희는 예술 활동을 했었지만 현재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해도 취미로는 할 수 있지만, 기획자의 입장에서 예술가하고 협업하려고 노력을 하지 저희가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 쪽에서 소모하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아요. 기획자와 예술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 영역에 기획자와 예술가를 포괄시키려고 하면 그 사업 자체는 기획자한테 유리한 거지 예술가한테 유리하지는 않아요.

유상진

김정근대표님은 두 분의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김정근

아까 문화두레시민회에 가입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문화두레시민회에 가입해서 작년에 300만 원짜리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일반 공모사업은 비영리 단체만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일반 개인사업자한테도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 했고요. 지금 논쟁하실 부분은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거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공모를 신청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걸 막는 최소한의 방어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상진

김민성 선생님은 중간지원조직에 있으시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겪고 스트레스 받는 업무 아니신가요. 중간지원조직에 계신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실 수 있을까요?

김민성

저는 방금 공연을 예로 들었을 때 예술가라면 공연에서도 구성이 있잖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무대를 조성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 모델을 조성하는 것도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입장을 따지자면 예술가랑 기획은 완벽하게 분리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예술과 기획을 분리한다는 것에 어떤 정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이강민

여기는 예술단체입니다. 저희는 기획 단체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저희가 협업을 하면 돼요.

활동 예산 자체의 어떤 부분은 드리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기획적인 영역에서는 저희가 용역을 받든지 제안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하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무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다른 거죠. 디자인의 영역은 어떤 광고 기획적인 부분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술가분이 연출을 하기 위해 직접 디자인을 한다고 그러면 예술가하고 기획자의 협업이 되면 되는 거지 어떤 예산을 쓰는 데 있어 그거를 통틀어서 하나의 단체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건 행정상으로 묶기가 번거롭죠. 근데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잘려나간다면 이쪽은 활동 영역으로 받는 비용이 중요한 거고 저희는 이것 실행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에 어떤 세분화를 더 해서 증빙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술 영역과 기획적인 영역은 좀 다르다를 정의라고 봅니다.

김민성

그러면 그렇게 분리가 되었을 때 기획자와 예술가의 관계가 필수 불가결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획자들의 커넥션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트워크라든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무조건 꺼서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강민

그 부분도 사업을 내실 때 어떤 사업을 한다, 말 그대로 캠프마켓이 있다. 캠프마켓은

어떤 문화 예술 행사를 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공연팀이 지원금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주는 데는 사업성을 가지고 제한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서로 커넥트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나중에 서로 지정이 되거나 선정이 되거나 어떻게 되면 그분들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팅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활동은 더 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기획자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을 좀 더 선보이기 좋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더 좋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획을 이 예술단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기획을 해 줄 수 있는 방향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묶어서 하나가 다 따서 준다 이런 개념이 되면 제가 따면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일을 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저런 대중성이나 좀 더 진정성 있는 공연 이런 걸 찾아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상진

김순지 선생님께서는 오픈된 사업을 보다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라 목적이나 가능성 등이 열려져 있는 그런 소통 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논의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순지

저는 예술가가 결국은 기획자의 역할을 해야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꽤 많은 부분에서 자기가 기획을 해 상업적인 장을 열어가면서 결국 최종 보스는 스스로 기획하면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게 성장의 어떤 한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술 지원을 부평구문화재단은 하고 있을 거고요. 예술가들에게 자기 작품을 완성할 수 있게 주는 돈 그다음 기획과 예술이 합쳐진 거 이미 나와 있는 여러 지원사업의 이름을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목표를 정확하게 갖고 할 수 있도록 안내만 하면 지금의 논의는 충분히 소화되고 해결될 것 같아요. 네이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혹은 공고문에 좀 더 친절하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지원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평에는 인디씬의 존재감이 굉장히 없어요. 성수동, 을지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뭐가 여기 가면 힙한 거 있지 막 이러면서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고 부평 문화의 거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술 마시러 오거나 쇼핑하러 와요. 문화의 거리에서 사실 문화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 그냥 지저분하다 재밌다. 이런 다양한 감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캠프마켓이나 여기 문화공간 시소도 그렇고 이렇게 잘 마련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놀러 다니고 문화를 즐기고 싶어서 홍대에 가고 서울에 가는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 문화도시가 시작된 후에도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어요. 유동인구가 진짜 많은 부평 문화의 거리에 저도 가게를 차리고 싶었지만 월세가 비싸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부평 문화의 거리에 깨끗하고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팝업샵을 연다거나 지원을 받아서 전시를 연다거나 영화 하시는 분들은 상영회를 열 수도 있고요.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북토크 등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그 거리에서 시민들이 돌아다니다가 저기 가면 무조건 재밌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지라는 신뢰를 가지고 공간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면 그 주변으로 파생되는 다른 문화적인 공간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가 사실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돈을 짧게 쪼개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동아리 사업도 좋지만, 눈에 띄고 조금 더 존재감 있는 힙한 수업도 해 주시면 저는 시민으로서 되게 즐길 거리가 많고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소식을 카카오톡 채널로 공유한다면 기획자들이나 예술가들이 그 채널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알 수 있고 시민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여러 문화 사업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모인 분들끼리 네트워킹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될 경우 발언권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화현

우리 이강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제 생각에 아마 무대 감독 쪽에 큰 하드웨어적인 기획을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처럼 예술단체 쪽의 기획이라고 하면 그냥 기획하니까 헛갈리시는 것 같아요. 예술감독 쪽의 기획, 저거는 커다란 전체적인 공연을 만들어가는 기획, 이렇게 나눠보시면은 좀 덜 헛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민

북극서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제안하고 싶어 하는 기획적인 부분의 사업성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진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한번 사업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서 제안서를 먼저 받고 기획서 제안서를 실현할 수 있는 예술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완성된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걸 지원할 수 있겠다. 이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오늘 2부 말미에서는 예술 활동과 기획의 구분에 의한 지원이 주된 논의가 됐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2부 들으시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다. 또는 추가적 질문이 필요하다 하신 분 있으신지요?

질문자3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예산 책정이 돼 있나요?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유경

190억이에요.

질문자3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190억이라는 금액이 4년이잖아요. 4년 계획안을 좀 들을 수 있나요? 여기 창작예술 시민 청년 기획자를 위한 지원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황유경

저희가 3월에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발표하고 또 저희 문화도시 홈페이지에 가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가 오래되어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예쁘지도 않아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 작업하고 있거든요.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을 보시는 것보다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업로드 하거든요. 동영상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저희가 매번 행사할 때마다 앞머리에 어떤 지원사업을 하든 사업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문화도시 부평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나온 내용에 저희 사업이 거의 다 들어 있거든요.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화 주시면 세부적인 것들은 친절히 설명 드리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저희만 뛰어다녀서는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더 드네요.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자주 놀러 오세요.

유상진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원 사업의 자립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1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행정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술가, 기획자들의 행정업무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예술가, 단체 기획자들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필요가 높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다섯 번째로는 신규 예술가, 기획

자를 발굴하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뜨거운 논쟁이 됐었던 예술 활동과 기획사업의 구분, 지원에 대한 검토를 포괄적으로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똑같이 1부처럼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부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공공지원 방식의 전환 모색 2022년 문화도시 부평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1부 2부에서 전해드린 과제들은 이후에 검토를 해보셔서 다음 논의나 공론장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사업에 반영해서 실천적으로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나름은 오늘이 나눌 공자의 공론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치고 마무리 지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문화도시 부평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도 잘 살피시고요. 돌아가시는 길 안전한 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문화도시부평 토론회 사후자료집

발행인	이찬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총괄	김유정 시민팀 팀장
기획	노수진 시민팀 팀원
지원	고다운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21440)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8(십정동)